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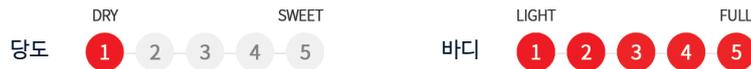
#호주 #럭셔리

‘펜폴즈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펜폴즈 BIN 2 쉬라즈 마타로

Penfolds BIN 2 Shiraz Mataro

지역	남호주 > 애들레이드		
포도품종	쉬라즈 82% 마타로 18%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딥 레드 컬러의 미디움 바디를 가지며 누구나 마시기 편하고 즐기시하며 프레시한 스타일의 와인이다. 신선한 카르파치오, 비프 타르타르 등의 육류 뷔앙스가 느껴지며 음식과 같이 먹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음식과 매칭하기 좋은 와인이다.		
페어링 TIP	소고기/양고기/파스타/치즈		



제품설명



BIN 2가 1960년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오리지널 BIN 2는 프랑스 론 지역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부르고뉴’라고 불린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다. 쉬라즈를 기반으로 하지만 미디움 바디에 프레시하고 매력적인 감칠맛과 푸딩과 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테이블 와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블랜딩 조합은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마타로(무르베드르)로 불리는 품종과의 블랜딩을 통해 복합미와 구조감, 맛의 지속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펜폴즈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랜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